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2. 16(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 추진한다!** 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상생도약 및 발전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 도지사, 안동·영주시장, 예천군수, 도의원, 학계, 공공기관장 등 총출동 문화관광, 신산업 유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로 열띤 토론 펼쳐	정책기획관	
② **경북도, 도내 대학 중국 유학생 전원 기숙사 격리키로 결정!** 12일 이철우 도지사와 대학총장 간담회 후속조치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중국 유학생 관리에 총력 대응	교육정책관	
③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지원**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3% 이차보전 기존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과	
④ **경북도, 미래 신업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총력** 기존 3, 4세대 가속기 시설, 인력, 운영 노하우와 연계로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기초연구 기반형(3, 4세대) + 산업 실증형(차세대) ⇒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완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가속기 운영 경험과 연계한 국가 미래 신업 발전방안도 모색	과학기술정책과	
⑤ **경북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감사에 주력**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홍보·교육·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문제해결,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	감사관	
⑥ **경북도, 도로공사장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2월 17일자 공사중지 해제로 재정 신속집행 박차 최근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아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겨 공사중지 해제	도로철도과	
⑦ **경북도, 옛도랑 복원하고, 청정마을 만든다!** 영주 신천마을, 문경 우곡마을, 봉화 문단마을 도랑 복원사업 선정 물길 최상류 복원으로 하류지역까지 건강성 회복 기대	환경안전과	
⑧ **칼라병 예방은 고추 육묘상 총채벌레 방제부터!** 평년보다 2℃ 가량 기온 높아... 고추 육묘상 총채벌레 관리 철저 당부	농업기술원	
⑨ **첨단 분석기기 활용 현장중심 실무교육... 학점도 취업도 OK!** 2020 동절기 분석기기 마이스터아카데미 16명 수료	보건환경연구원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방역대응 의료기관' 현장 방문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 성 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허윤홍	주무관 김수환
		연 락 처	054-880-2138		

경북도,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 추진한다!

- 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상생도약 및 발전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 -
- 도지사, 안동·영주시장, 예천군수, 도의원, 학계, 공공기관장 등 총출동 -
- 문화관광, 신산업 유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로 열띤 토론 펼쳐 -

경상북도가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주문한 이후 도는 전략 마련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북부권 발전전략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하에 북부권 시군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1차로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청신도시와 북부권의 상생도약과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신도시와 연계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권영세 안동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와 지역 도의원, 안동대·동양대·경북도립대 산합협력단장, 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대구경북연구원장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는 경북개발공사의 '경북도청 신도시 추진상황'과 대구경북연구원의 '신도청 연계, 북부권 발전전략', 안동·영주·예천 등 3개 시군의 발전전략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신도청 연계,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으로 도청신도시와 주변도시 간 연계된 연합도시권을 형성해 동반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군별 전략사업 발표 시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안동시는 하회마을 병산서원 로열웨이(Royal Way) 연계 명품관광지화 사업 등 유교중심의 전통문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바이오산단 내 백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바이오백신산업 육성 방안, 대마를 활용한 Hemp실증연구센터 구축 등 신약개발 기반 구축사업 등을 발표했다.

영주시는 현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으며, 국가거점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예천 회룡포, 안동 하회마을, 영주 무섬마을 등 경북의 3대 물도리 마을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과 학가산 권역 지역개발 추진,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경북 북부권은 도청이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인근시군의 인구유출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함께 도청신도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반면, 향후 추진될 통합신공항 건설과 중앙선 복선전철 연말 개통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신산업 유치 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권영세 안동시장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일본의 기후현의 다카야마시에 연간 해외 관광객 500만명이 찾는 사례를 설명하고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특허화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정주인구 중심보다는 유동인구를 확보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6개도 32개시군은 험한 산으로 낙후되어 있다. 국가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법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교와 불교 등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북부권 시군과 도의 협업, 여행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청신도시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북부권 통합축제와 문화콘텐츠 멀티플렉스, 사회적기업 육성, 식품바이오 도시조성, 청년창업 밸리조성, 지역 펀드조성 등과 함께 북부권이 협업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서 분야별로 정례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청신도시와 북부권 발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나누는 등 북부권 시군 모두가 잘 사는 발전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의 다른 시군과도 권역별로 나누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북부권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작성자	과 장	천 정 창	
			팀 장	박장호	주무관
		연 락 처	054-880-4575		

경북도, 도내 대학 중국 유학생 전원 기숙사 격리키로 결정!

- 12일 이철우 도지사와 대학총장 간담회 후속조치 -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중국 유학생 관리에 총력 대응 -

경북도는 도내 대학 입국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격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경북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모두는 대학 기숙사 등 임시생활숙소에 14일간 별도 생활한 후 개강을 맞이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2월 13일 현재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4개 대학 총 2,087명이고, 이중 국내체류 653명, 휴학·입학포기 등의 사유로 아직 입국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133명을 제외하면 1,301명이 입국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 중 중국 유학생이 708명으로 가장 많은 영남대학교는 입국예정 421명 전원을 2월말까지 입국시킨 후 교내 향토관 3개동 등에 보호조치 할 계획이고, 대구대학교의 경우에는 입국예정인 97명을 비호생활관에 14일간 별도 생활시킬 예정이다.

특히,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안동대학교는 전세버스를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한꺼번에 공항에서 기숙사로 이동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기숙사에 입사한 중국 유학생은 14일 기간 동안 외부출입 없이 도시락 등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일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받으며 특별한 보호 속에 생활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중국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열화상감지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기숙사 숙식비, 버스임차비 등 중국 유학생 별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시군, 대학과 협력해 입국전 유학생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안내 후 기숙사에 입사시킨다. 14일 보호기간 동안에는 외출금지, 이상 징후 시 행동요령을 숙지시킨 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유학생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단계별 특별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대학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도에서도 재정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벤처기업과		
		작성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명제	주무관 신재선
		연 락 처	054-880-2681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지원

-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3% 이차보전 -

- 기존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북도는 17일부터 1,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수출·관광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중국 현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17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 시급히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험한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 홈페이지 www.gepa.kr)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수출·관광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대응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200억원***(은행협력자금)

○ 사 업 비 : 36억원(도비)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1년 거치 약정상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③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④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시군) ⇒ 융자추천(경북경제진흥원) ⇒ 대출 실행(은행→업체) ⇒ 이차보전금 지급(도→은행)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 장	홍 석 표	
			팀 장	강은희	주무관 남현대
		연락처	054-880-2421		

경북도, 미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총력

- 기존 3, 4세대 가속기 시설, 인력, 운영 노하우와 연계로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
- 기초연구 기반형(3, 4세대) + 산업 실증형(차세대) ⇒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완성 -
-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가속기 운영 경험과 연계한 국가 미래 산업 발전방안도 모색 -

경상북도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포항시, 포스텍과 함께 차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이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 방사광가속기보다 빛의 밝기를 약 100배 이상 개선한 가속기로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 산업발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생명, 반도체, IT, 나노소자 및 신소재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대형 국가연구시설로 현재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위탁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중이다.

* 기존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저장링 내부 전자석 수를 증가시켜 빔집중도를 약 100배 향상, 방사광의 성질(밝기, 결맞음)이 우수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로서 정부에서는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라고 칭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 가속기에서는 분석이 어려웠던 철강 등 소재·부품의 내부 구조를 비파괴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은 물론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해외에서도 스웨덴을 비롯한 브라질, 일본 등에서 신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중이거나 기존 3세대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에 설치된 3,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운영중이지만 이용자 대비 연구과제 수요가 포화상태로 가속기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 방사광가속기 구분>

구분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4세대 (선형)방사광가속기
건립 (위치)	1995년도 (포항)	미정	2016년도 (포항)
건립비	2,500억원	6,000억원~8,000억원	4,298억원
빛의 밝기	태양빛의 100억배	3세대의 100배~1,000배	3세대의 1억배
동시 실험	20개 이상의 빔라인 동시 실험 가능	20개 이상의 빔라인 동시 실험 가능	다수 실험에는 제한적 (1~3개 동시 실험 가능)
활용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용(70 ~ 80%)	기초과학, 응용과학
구축 국가	한국 포함 세계 30여기 운영 중	스웨덴 '16년 준공 (中, 브라질, 유럽 구축 중)	美, 日, 獨, 스위스, 한국 운영 중 (中 구축 중)

정부(과기부)는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념설계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전 건립 부지를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나주(전남), 오송(충북), 춘천(강원), 인천 등 4개 지자체에서 유치 선언을 하고 부지 선정을 비롯한 지역 타당성 조사 등 유치활동을 전개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 동향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지 물색과 지역의 유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포항시와 협의하여 포스텍내 기존 3, 4세대 가속기가 위치한 인근지역에 100,000㎡ 규모의 차세대 가속기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고 측량, 지반 조사, 관련규정 검토 등 가속기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도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건립되면 기존 가속기의 전력, 상하수도, 가스, 난방시설 등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에 비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시급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산업 지원도 앞당길 수 있어 포항이 차세대가속기 건립에는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995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이후 25년간 가속기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초·응용과학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건설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산업 실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속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속기와의 물리적 인접성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하는 신규 가속기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 가속기 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 3,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하여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 등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을 과기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가속기 기반 그린신소재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국비를 지원 받아 설립중이며 가속기를 활용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가속기 기반 차세대배터리파크 조성사업’도 예타사업으로 기획중이다.

도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하여 현재 지역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를 진행중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그간의 지역의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산업육성 경험을 토대로 차세대 가속기 설립후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성과 연계산업 육성 방안을 지역 및 산업체의 수요조사, 가속기가 집적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차세대 가속기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경북도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미국의 SLAC(국립가속기연구소), 영국의 Dimond(다이아몬드 광원연구소), 일본의 JASRI(싱크로트론 방사광 연구소) 및 RIKEN(이화학연구소), 스위스의 PSI(국립연구소), 독일의 MPI(막스 플랑크연구소) 등 다양한 해외 가속기 기관과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류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감사관		
		작 성 자	감사관	이 창 재	
			팀 장	이승태	주무관	이명재
		연 락 처	054-880-4332		

경북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감사에 주력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홍보·교육·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 문제해결,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 -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정청구 방지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보조금감사 실시에 주력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간 제재부가금 부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발송해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재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과 공공재정 관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역별 감사교육을 3회 실시한다. 실·국별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 담당자들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보조금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새로이 만들어 관련공무원에게 배포해 사업추진 단계별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감사는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보다는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지적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여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과실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Ⅰ》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참고자료 II》


2020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1일 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공재정지급금의 사용이 투명하고 건전해집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부정이익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허위청구 5배
· 과다청구 3배
· 목적외사용 2배
명단공개
신고자
신분보호, 책임감면
보상금, 포상금 지급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주	
			팀 장	손병순	주무관 권윤혁
		연 락 처	054-880-3981		

경북도, 도로공사장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 2월 17일자 공사중지 해제로 재정 신속집행 박차 -

- 최근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아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겨 공사중지 해제 -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절기 공사중지 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2월 17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앞으로 큰 추위는 없는 것으로 기상청 장기예보가 발표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를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해제했다.

이번 공사중지 해제로 경상북도는 공사 중지중인 사업에 대해 일제히 재착공해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적~금구간 도로건설공사 등 8지구 지방도 공사가 현장실정에 맞춰 재개된다. 그러나 기온의 영향을 받는 콘트리트타설 등은 공사중지가 해제되더라도 기온 급강하 시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주 공사도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착공할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최근 날씨를 고려해 동절기 공사중지를 앞당겨 해제함에 따라 각종 사업의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사업의 조기발주 등 지방 재정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작성자	과 장	이 희 석	
			팀 장	류재욱	주무관 신무경
		연락처	054-880-3542		

경북도, 옛도랑 복원하고, 청정마을 만든다!

- 영주 신천마을, 문경 우곡마을, 봉화 문단마을 도랑 복원사업 선정 -
- 물길 최상류 복원으로 하류지역까지 건강성 회복 기대 -

경북도는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마을 앞 도랑·실개천을 살리기 위해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020년 낙동강수계 도랑 복원 공모사업에서 전체 예산액 441백만원의 55%에 해당하는 241백만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영주 신천마을, 문경 우곡마을, 봉화 문단마을 등 3개 마을, 1.2㎞의 도랑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도랑·실개천은 하천의 실핏줄로서, 물길의 최상류이자 유역 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적(물관리)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조상들에게는 취수, 빨래터, 물고기잡이, 쉼터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활터전이었던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대다수의 도랑·실개천이 생활하수, 가축분뇨,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 도랑의 오염·훼손 현황 〉


생활오수 유입


가축분뇨 야적


쓰레기 소각

경북도는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으로 오염·훼손된 도랑·실개천을 복원한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습지·생태연못을 조성

해 수생식물을 식재한다. 또 주민교육,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을 통해 도랑·실개천의 수생태계가 복원되고, 청정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 도랑 복원활동을 추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도랑품은 청정마을사업 선정 사업

□ 영주 신천마을

○ 사업기간 : ‘20년 3월 ~ 12월(**90백만원,** 이산면 신천리 1308)
○ 사업규모 : 신천리 마을 도랑 → 내성천(영주댐)(0.4㎞)
○ 기타 : 주민협의체 구성예정, 1사-1도랑 및 도랑지킴이 예정
○ 주요사업 : (하천정비) 하천 준설(물길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



□ 문경 우곡마을

○ 사업기간 : ‘20년 3월 ~ 12월(**76백만원,** 산북면 우곡1리)
○ 사업규모 : 우곡리 730 ~ 우곡리 524(0.4㎞)
○ 기타 : 주민협의체 구성예정, 1교-1도랑 및 도랑지킴이 예정
○ 주요 사업내용
- (하천정비) 하천 준설(물길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



□ 봉화 문단마을

○ 사업기간 : ‘20년 4월 ~ 12월(**75백만원,** 봉화읍 문단리 1205-7)
○ 사업규모 : 문단2리(마을도랑) → 내성천 → 영주댐 → 낙동강(0.4㎞)
○ 기타 : 주민협의체 구성예정, 1사-1도랑 및 도랑지킴이 예정
○ 주요사업 : (하천정비) 하천 준설(물길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원 종 건	
			팀 장	김찬용	주무관 권오훈
		연 락 처	054-683-1691		

칼라병 예방은 고추 육묘상 총채벌레 방제부터!

- 평년보다 2℃ 가량 기온 높아... 고추 육묘상 총채벌레 관리 철저 당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는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 정도 높아 꽃노랑총채벌레의 발생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니 주기적인 예찰로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를 철저히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고추 육묘상에서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의 월동 양상을 조사한 결과, 육묘상 내 측면과 출입문 주변을 중심으로 월동 잡초와 토양 잔재물에서 월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꽃노랑총채벌레는 최근 고추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칼라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TSWV)을 옮기는데 바이러스를 보독한 총체벌레가 월동을 하면 1차 전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추 육묘상에서는 꽃노랑총채벌레의 관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황색 평판트랩을 사용하거나 흰 종이로 고추 잎을 털어 노란색을 띤 유충이나 성충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양고추연구소 관계자는 “꽃노랑총채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 전용약제를 번갈아서 뿌려주고 육묘상 안팎에서의 주요 월동처인 별꽃 등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6(일)】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팀		
		작 성 자	부 장	정 광 현	
			과 장	손창규	주무관 이지형
		연 락 처	054-339-8281		

첨단 분석기기 활용 현장중심 실무교육... 학점도 취업도 OK!

- 2020 동절기 분석기기 마이스터아카데미 16명 수료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20년 동절기 보건 · 환경 마이스터아카데미(15기)」 교육과정에 참가한 4개 대학 16명의 교육생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마이스터아카데미 과정은 지역 이공계 대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분석기기에 대한 이론 및 활용 실무 교육과정이다. 감염병, 식품(농·수산물 등), 약품 분석 교육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실무분야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체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해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뉴스에서만 보던 해외유입 감염병검사 등의 실험들을 직접 체험하여 매우 만족스러웠고, 학점 취득도 동시에 하게 되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마이스터아카데미는 2013년부터 매년 2회(4주 과정) 실시해오고 있고,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동안 진행된다. 지금까지 3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0년 7월에 진행될 「마이스터아카데미(16기)」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지역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될 예정이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전문교육 인력과 첨단 분석 장비를 좀 더 확충하고, 지역 전문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방역대응 의료기관’ 현장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 17일(월) 오후 3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방문해 선별진료소 운영상황과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인과 간담회를 가진다.